



## 두산DST(주)

#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륜형 중장갑차 인도네시아에 수출

두산DST(대표 엄항석)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륜형 중장갑차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한다. 이에 두산DST는 지난 5월 2일 창원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육군에 인도될 6x6 차륜형 중장갑차(인도네시아 육군 명칭 따라톨라 6x6) 장비 출고식을 가졌으며,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인도네시아 검사관,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두산 DST는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육군과 6X6 차륜형 중장갑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1월부터 생산을 개시했다. 이어 2012년 초부터 시제품에 대한 운영 평가와 사격 및 야전 운용시험을 시행한 끝에 생산을 완료했으며, 총 22대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에 수출되는 차륜형 중장갑차는 무게 18톤에 승무원 3명(조종수, 차장, 사수)이 탑승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의 지형 여건에 맞춰 가볍고 수상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지상에서는 시속 100Km, 수상에서는 시속 8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90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돼 적의 밀집부대는 물론 전차까지 타격 가능하며, 게릴라 탐색 격멸작전에도 운용이 가능하다.

두산DST의 엄항석 사장은 “한국 최초로 차륜형 중무장 장갑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 및 수출하게 돼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성사되었으며, 앞으로 장갑차뿐만 아니라 대공무기, 발사대 등 당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방산제품을 수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현재 세계 장갑차 시장이 차륜형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두산DST 제품이 경쟁국인 터키 및 러시아 장비와 비교해 화력, 야지 기동력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는 등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 향후 중동 및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도 수출이 기대된다.”며 인도네시아에 이은 후속 수출계약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2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두산DST 본사에서 열린 차륜형 90mm 중장갑차 장비 출고식에서 인도네시아 육군 관계자와 협력업체, 두산DST 직원들이 중장갑차의 수상 기동장면을 지켜보고 있다.